

시 한 소절로 더위도 쫓고 위로도 전네고...

재능시낭송협회 '시인과 함께하는 목요일낭송' 14일 시청자미디어센터 주부·교사 등 50여명 회원 활동...강만 시인 작품 낭송·시퍼포먼스 무대

광주재능시낭송협회(재능시낭송협회·회장 김귀숙)는 올해로 창립 30년을 맞았다. 지난 1993년 협회가 결성돼 올해로 '이립'(而立)의 나이를 맞았다. 초대 회장은 오소후 시인이 맡아 단체를 이끌었다.

사실 문화와 예술 관련 단체가 30년을 지속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회원들의 열정뿐만 아니라 협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재능시낭송협회는 모두 5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들의 면모는 다양하다. 주부에서부터 교사, 시인, 무용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시낭송을 하는 것은 시가 가진 힘을 믿기 때문이다. 한 편의 시는 삶에 지쳐 실의에 빠진 이들과 아픔과 슬픔을 겪은 이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 요즘처럼 무더위에 지친 이들에게는 한 줄기 시원한 바람처럼 위안을 주기도 한다.

재능시낭송협회가 '시인과 함께하는 시인 목요일낭송' 공연 무대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오는 14일 오후 6시 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

문화재단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낭송회는 강만 시인의 시 작품을 위주로 진행된다. 낭만적인 서정을 노래한 강만 시인은 시와 시학으로 등단했으며 광주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광주문협 작가상, 박용철 문학상, 광주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시집으로 '따뜻한 눈빛', '유랑의 새', '푸른 단검' 등을 펴냈다.

이번 낭송회는 강만 시인의 작품을 시낭송, 시 퍼포먼스로 재탄생시킨 공연, 요들송, 무용, 독창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먼저 첫 무대로 박애정, 지희순, 신현남, 박복숙, 박영숙의 우크렐라 연주가 펼쳐진다. 이어 여는 시로 시낭송가 노경호 낭송가가 '고부 들녘을 지나며'를 낭송한다. 탁인석 문인협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효연은 '아름다운 아가씨'를 요들송으로 들려준다.

함께 여러 명이 시를 낭송하는 합송 무대도 마련돼 있다. 양동률, 이희옥, 전경숙, 박복숙, 박영숙이 '무등에게'를 합송한다. 뒤이어 강만 시인이 인사말과 함께 시작노트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윤혜정이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장정순이 '겨울연가'를 선보이고 전금희는 무용을 선사한다.

또 다른 낭송의 무대도 마련돼 있다. 박항순과 이은아는 각각 '하늘', '연서'를 들려준다. 윤혜정이 연출한 시 퍼포먼스 '황진이' 무대에는 송성근, 나정숙, 윤정숙, 최명희, 윤서영, 최민서, 윤영숙이 오른다.

"그리움의 등불 하나 들고 백년을 거슬러 그대에게 가는 길/ 세월 깊이 묻힌 길은 물안개 피어 자욱하고/ 키를 넘는 잡초들 귀신의 쇠로 우네/ 이승의 끝을 흐르는 강가에 이르니/ 나의 말은 갈기 세위 말굽을 치고 / 아, 강 건너 그대 마을 아득하여라//(중략)// 아아 그러나 천년을 다시 기다리라함인가/ 강 건너 그대 마을 아득할 뿐 저승문 닫히는 새벽 닭울음소리/ 사무치는 나의 낮은 호울로/ 하늘 끝을 떠도네."('황진이 생각' 중에서)

가예출사위 예술단 대표 잔금의 무용가는 단아하고 섬세한 춤사위로 공연의 흥을 돋운다. 무엇보다 시인이 직접 낭송하는 특별 무대도 펼쳐질



광주재능시낭송협회가 오는 14일 시청자미디어센터 공연 무대에서 선보일 '황진이 생각' 퍼포먼스.

(광주재능시낭송협회 제공)

예정이며 관심을 끈다. 정진자는 '어머니의 유산'을 읊을 예정이며 소프라노 박영미는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중 '어느 개인 날'을 선보인다.

마지막 달는 시는 김혜숙이 '채석강'을 들려주는 것으로 무대가 마무리된다.

한편 김귀숙 회장은 "우리 일상의 평범함을 촌철살인 같은 시어로 정감있게 표현하는 강만 시인의 시에 저희 회원들이 아름답고 꾸밈없는 마음으로 낭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현실과 상상 사이 '설화의 탄생'

주성범 개인전, 8월7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그대의 바다'

'현실과 상상 사이, 이상향을 꿈꾸다.' 주성범 작가 개인전이 오는 8월7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하경완)은 매년 지역 작가와 미술 그룹들을 지원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삶의 잊혀져가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주성범 작가는 '설화의 탄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서 자연과 신화적 서사를 담은 상상 속의 풍경화 25점을 선보인다.

'이야기가 있는 회화'를 추구하는 주 작가는 설화, 전설, 우화 등이 연상되는 이야기로 하나의 세계를 구성한다.

작품 속 등장하는 산의 형상들은 씨앗의 이미지를 재구성한 것으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작가는 시를 쓰고, 일기를 쓰며 '이야기를 만든' 단련을 해 나가고 있다.

작가는 작품의 주테마로 식물의 씨앗을 활용한다. 후대를 위한 유전 정보가 담겨있는 씨앗은 작가의 붓질을 통해 내러티브를 지닌 설화, 또는 상상의 이미지로 만들어진다.

생명의 진화, 공동체,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그가 작품에서 풀어내는 이야기는 자연과 인간은 대립의 관계가 아닌, 필수불가결한 관계임을 보여준다.

도자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상감 기법을 차용하는 그는 씨앗의 형태에 조각칼을 이용해 이미지를 채우고 다른 색을 채워 표현해 나간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주 작가는 개인전 7회, 기획 초대전 및 단체전 100여 회 등에 참여,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청동회 회원으로도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오페라단, '마술피리' 무대 올린다

15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모차르트 최후의 역작으로 꼽히는 오페라 '마술피리'는 200여년간 전 세계 공연장에서 술하게 무대에 오르며 사랑을 받고 있는 레퍼토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즐거리와 아름다운 음악은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최고의 기교를 자랑하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부르는 '밤의 여왕' 아리아는 오페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본 곡이다.



정선영 예술감독



광주시립오페라단 '찾아가는 오페라' 공연 중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모습.

(광주시립오페라단 제공)

다.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입문 오페라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국내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인들이 참여한다. 구성, 해설대본, 연출에는 우리나라 소극장 오페라 공연의 새로운 전범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정선영 예술감독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성근이 참여한다.

타미노역에는 테너 원유대, 파미나 역에는 소프라노

김예셀, 밤의 여왕역에는 소프라노 이지영, 자라스트로 역에는 베이스 전태대, 파파게노 역에는 바리톤 김희열, 파파게나 역에는 소프라노 신은선이 맡는다.

오페라 '마술피리' 속 고전(클래식)의 전례지지 못한 아름다움과 지혜를 동시대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해설과 함께하는 콘서트 오페라로 각색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전석 1만원. 문의 062 412-2507.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예스24 '한국 문학 미래가 될 젊은 작가' 8월11일까지 온라인투표

예스24가 '2022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지난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독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는 문학 활동을 시작한 젊은 작가를 응원하고 독

자들과의 소통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매년 진행돼 왔다. 올해 후보자는 2012년 이후 등단한 작가이거나, 혹은 등단하지 않았더라도 2012년 이후 첫 소설집이나 장편소설, 시집을 출간한 작가 중 16인으로 추려졌다. 김병은·김혜진·문묵하·박상영·박서린·백은선·설재인·

연여름·우다영·이유리·임솔아·정현우·조예은·천선란·최유안·최지인 작가(가나다순)가 후보에 올랐다. 후보 작가들 중 최대 3인에게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투표에 참여한 회원 전원에게 YES상품권 1000원이 지급된다. 또한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는 작가 사인본 도서와 YES상품권 10만 원을, 2등(3명)에게는 사인본 도서와 YES상품권 5만 원을 선물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